

재생이

군산 도시재생 소식지

 9월호
2022년



2022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T. 063. 442. 1166 ~ 7 E.mail. gscur@daum.net

재생 알림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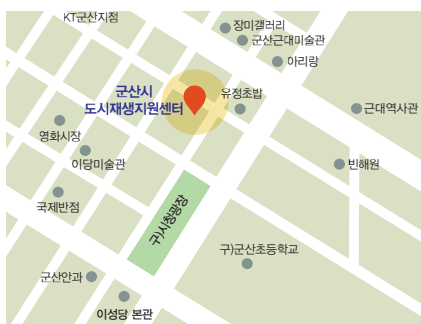


●역할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조)

●위치



도시재생 小考

가을 축제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송석기 센터장

선선한 바람과 함께 맑고 깨끗한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반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 의욕적으로 계획하였던 축제들이 간소화되거나 취소되어 왔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료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은 옛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내항과 선도지역, 중앙동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보선창변영회에서 꾸준히 열고 있는 중앙동 인심축제는 올해까지 사업 기간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주민 주도로 지속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축제입니다. 또한 수제맥주 축제 역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작된 군산 수제맥주의 가치를 군산시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또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민 주도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월명동 선도지역에서도 새로운 축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성과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표지사진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사흘간(9. 16.~18.) 짜릿한 군산의 술맛을 선사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거점지 '재보스토리 1899'에 들어선 수제맥주 체험장 '비어포트'와 군산 도시재생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는 페스티벌이었다. 군산수제맥주의 짜릿함은 중앙동 '재보스토리 1899' 1층 비어포트에서 금강의 노을을 바라보며 마시는 또 다른 맛으로 1년 내내 즐길 수 있다.





군산 도시재생 소식 2022. 08. 22.~ 09. 20.



2022. 08. 22. 월요일

소룡동 주민협의체 회의
소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8. 23. 화요일

해신동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9. 13. 화요일

재보선창변영희 주민회의
재보스토리 1899 1층



2022. 09. 14. 수요일

손편지축제 주민회의
우체통거리 홍보관



2022. 09. 20. 화요일

경암동 역량강화교육 6강
월명동 올드브릭



2022. 09. 20. 화요일

진안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 선진지 견학
중앙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일대

도시재생뉴딜 중앙동

목공교육 도시재생대학 종강

저~ "건축도장기능사" 취득했어요

은파목공건축문화원 송승현 원장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주민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목공교육은 2022년 6월 21일(화)부터~9월 8일(목)까지 매주 화요일(13:30~17:30), 목요일(13:30~17:30) 4시간씩 총 12회차(48시간)의 목공기초교육과 도장기능사 자격증반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반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규 자격증으로서, 합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연습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임에도 수강생 모두 성실하게 임하여 수강생의 상당수가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외 교육생들은 이번 10월에 치러지는 정기 3회차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목공기초반 홍명자 수강생은 "수업을 통해 배운 기술로 집에서 뒀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장 난 경첩도 직접 고칠 수 있어 정말 좋다"며 소감을 말했다.

수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알게 되었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도시재생뉴딜 중앙동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민간혁신우수사례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여’ 군산시 도시재생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문병일 팀장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 주제로 2022 제7회 도시재창조 한마당이 강원도 홍천에서 8월 31일~9월 2일 3일간 열렸다.

전체 행사 중 민간혁신 우수사례 대회에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문병일 팀장이 ‘맥아박 푸드 업사이클을 통한 껌보선창 업사이클’의 주제로 신청하여 광역예선(7.22), 중앙예선(8.12)을 통과하여 9.2.(금) 홍천 토리숲 중앙무대에서 경진대회(발표심사)를 하였다.

본선 5개 팀 경기 고양, 대구 동구, 인천 서구, 전남 순천, 전북 군산의 순으로 10분의 발표 시간이 이루어지고 심사발표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대상 경기 고양, 최우수상 전북 군산, 우수상 대구 동구, 인천 서구, 전남 순천으로 정해졌다.

군산은 2020년 대한민국 도시재생박람회 도시재생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2021년 도시재생 사례공유발표대회 비즈니스 분야 최우수상, 2022년 민간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으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만들어 냈다.

2020년 5월부터 맥아박을 활용한 에너지바를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2020년 7월부터 시제품 만들기를 시작하여 2021년 전북 최초 도시재생형 예비마을기업 선정, 껌보선창협동조합 설립, 2022년 전북 최초 도시재생형 신규마을기업 선정이라는 주민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냈으며 이번 민간혁신 우수사례 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로 뽑히는 성과를 얻었다. 2022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도시재생으로 주민주도의 껌보선창협동조합의 설립, 전북 최초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주민들이 푹푹 뭉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도시재생뉴딜 **중앙동**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2022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나의 도시, 나의 맥주’라는 슬로건으로 도시재생 성공도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일원에서 9월 16일~18일 3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궤보선창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이루어진 행사로 군산시 도시재생홍보관도 함께 마련되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8년~2022년 5년간 진행되는 중심시가지형으로 12개 단위사업과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협창고 리모델링 및 문화특화조성사업을 통해 매입한 수협창고(구)동부어판장을 리모델링 하여 먹거리정책과에서 1층 수제 맥주 양조장과 4개의 판매장을 구성하여, 국내 최초 군산에서 재배된 맥주보리를 이용해 맥아를 만들고 농업법인 군산맥주조합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어 4개의 업체가 수제 맥주를 판매하고 공모를 통해 15개 군산 업체들이 안주를 담당하였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3년 만에 맞이하는 하는 페스티벌로 16,000여명의 많은 인파가 방문하였다. 2022 군산 수제 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 도시재생 성공도시 군산과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비어포트에서 생산된 군산 수제 맥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문병일 팀장)



2022년 중앙동 인심축제 “궤보선창의 불을 다시 켜다!”



로컬프렌들리 김수진 대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공동체 ‘궤보선창번영회’와 청년 창업팀인 지역 문화 기획회사 로컬프렌들리가 주관하는 <2022년 인심축제>가 9월 16일(금)부터 17일(토) 이틀 동안 중앙동 궤보선창 일대(금암동 1-47)에서 개최됐다. 매년 정월대보름 중앙동 주민들의 인심을 베풀기 위해 열려왔던 인심축제가 올해는 특별히 다채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틀간 개최되었다.

<2022년 인심축제>는 개막행사, 사진전(궤보선창 기억展), 무료공예체험, 전통놀이체험, 어린이미술대회, 궤보선창 정각투어 등으로 진행했으며 축제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인심축제 전용 기념품인 <군산 선물 키트>를 배부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이날 500여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열기를 더했다. 전북 최초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인 궤보선창협동조합에서 제작한 할매맥아박장정을 포함하여 군산바다를 주제로 한 상품들로 선물키트를 구성하였다.



도시재생뉴딜 중앙동

도시 숲이 당신을 부름 ~

이음예술문화원 이영미 원장



무더위가 물러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중앙동 도시재생 숲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숲속 공연이 펼쳐져 450여명 시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 (사)이음예술문화원(원장 이영미)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1부에 다양한 체험 부스 및 프리마켓과 푸드트럭 등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제공하였고, 2부는 석양과 숲 내음, 음악으로 시민들이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특히 공연에는 'L-crew' 팀의 멋진 퍼포먼스, 한용호 님의 청아한 대금연주, 트럼펫 신동 광다경 양의 연주로 도시 숲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역주민의 자녀들로 구성된 '소리엘 어린이 중창단'의 울동과 노래는 코로나19로 침란했던 관객의 마음에 큰 위로가 돼 주었다. 또한 군산 출신 음악가 '프레스티지 트리오', 군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비바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공연으로 도시재생 숲은 품격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여름의 끝자락 무더위 날린 군산 비어포트 '2022 군산맥주데이'

크래프트 월명 김정훈

군산 비어포트에서 진행된 '2022 군산맥주데이'가 지난 8월 2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주민공모사업에서 추진한 이번 축제는 지역 시민들에게 설렘과 추억을 선사하는 역할을 넘어 군산 비어포트에서 군산 보리를 사용한 수제 맥주를 알리며 군산 맥주를 브랜드화하는 역할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군산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날 룰렛 돌리기, 콘홀 대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더욱더 축제의 현장이 뜨거웠다. 군산비어포트 내 좌석은 가득 채워졌고 가족과 연인, 직장동료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맥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가득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크래프트 월명 담당자는 "앞으로 '2022 군산맥주데이'가 군산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다음 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이런 생각이!**해신동,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

해신동주민협의체 정도진 회장

주민협의체 활동을 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임원들하고 한마음이 되질 않고 각자 생각만 하고 주관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봉사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분들은 해망동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실천이라는 것이 행동하고 말하고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한마디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한마디하고, 회의를 하려면 미리 임원들을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회의 할 때는 간단하게 요점만 가지고 회의를 하면 되는데 너무나 회의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지루해요. 시청에서 와서 얘기를 하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 합의점을 찾아서 전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청에서 설명하는 것은 A라는 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B라는 것을 던져 버리면 준비도 안 됐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해신동을 깨끗이 해야겠다고 하는 발언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은 한데, 거의 90%가 실천을 못 했어요. 상인들을 위해서 회원들이 모여서 해망동을 깨끗이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가분들은 어찌 보면 그분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요. 상가분들이 술선수범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반발하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개선점을 찾아 우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봉사직은 위원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다 같이 알고, 될 수 있으면 반대가 없이 잘 실현이 될 수 있는 계획서에 있는 사업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서 확실히 이미지를 심어줘서 같은 마음으로 무슨 사업을 하나 나중에 후회 없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해망동이 가격이 비싸고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많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생선 5일장을 했으면 해요. 생선이 안 팔리고 남은 생선을 20-30% 싸게 팔면 이미지도 좋고 지역사람들한테는 싼 생선을 줘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좋지 않냐 이거죠. 외부는 선물로 사가서 생선을 오래 놔두려면 냉동실에 들어가지만 냉동실에 오래 들어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싱싱한 생선을 유통해서 아! 해망동이 이런것도 있구나! 많은 사람이 모이면 괜찮잖아요. 한 개 팔아서 만원 남기는 것보다는 열 개 팔아서 만원 남기면 앞으로 내다보면 큰 돈이 되는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변화가 와야 되지 않냐, 모든 상인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리: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준호 사무국장)



제5회 손편지축제



행

2022년

복

2022. **10.1** (토) 10:30-17:30
군산우체통거리(군산우체국 앞~사거리)

손편지쓰기 “행복”을 주제로 손편지쓰기

나만의 우표 만들기 축제 당일 신청 - 선착순 100명

해시태그 후기인증 시상식

꽃으로 전하는 편지 전시 장소: 그린스미스 플라워스쿨

주민참여 무료체험행사

우체통찰보리칼국수	건강꽃소금	커피 앤 플라워	야생화 손수건
더베러·리오	헤어핀	공방꽃향기	천연염색 누에고치 브로치
라복임플로체	미니 꽃다발	글라스월드	미니어처 핸드백
오빌	진주팔찌	성광교회	무궁화 꽃 편지 / 업사이클링 종이화분
두둑치	슈링클스	홍보관	우체국 역사 우체통그리기

공연 군여고동문합창단, 다문화예술단(국악, 대중가요)
군산 소년·소녀 합창단, 우리가락 퓨전난타, TNB중창단 공연 등

문의: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063-443-1020)

- 발 행 일 2022년 9월 25일
- 발 행 인 송석기
- 발 행 처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기획·편집 김기은·정예슬

